

##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 수사’ 현재 진행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검찰의 ‘적폐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사찰과 예산 유용, 뇌물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의혹도 확인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건도 다시 수사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윗선’이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적폐 수사가 2018년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2019년까지 이어진 이 수사로 헌정 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6.13 지방선거... 민주당 기록적 압승, 야당 참패

### ■ 광역단체장 민주 14 · 한국 2 · 무소속 1... 與 지방권력도 ‘접수’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대 압승’이자 ‘역대 최악 참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 박원순(52.8%) ▲인천 박남춘(57.7%) ▲경기 이재명(56.4%)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이른바 부·울·경에서도 ▲부산 오거돈(55.2%) ▲울산 송철호(52.9%) ▲경남 김경수(52.8%)를 당선시키며 완승했다. 민주당이 부·울·경 광역단체에서 완승한 것은 최초였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광주 이웅섭(84.1%) ▲대전 허태정(56.4%) ▲세종 이춘희(71.3%) ▲강원 최문순(64.7%) ▲충북 이시종(61.2%) ▲충남 양승조(62.6%) ▲전북 송하진(70.6%) ▲전남 김영록(77.1%) 등 호남과 충청·강원권 전역에서 압승했다.

한국당은 ▲대구 권영진(53.7%) ▲경북 이철우(52.1%)만 수성하는 데 그쳐 사실상 ‘TK(대구·경북) 정당’으로 뜨거라든 모습이었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정당별 당선 현황

	광역 단체 17명	기초 단체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6명	국회의원 12명
<b>더불어민주당</b>	14명	151명	652명	1,638명	11명
<b>자유한국당</b>	2	53	137	1,009	1
<b>바른미래당</b>	0	0	5	21	0
<b>민주평화당</b>	0	5	3	49	0
<b>정의당</b>	0	0	11	26	0
<b>민중당</b>	0	0	0	11	0
<b>무소속</b>	1	17	16	172	0

연말뉴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66.8%)에서 승리해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를 한국당 조은희 후보(52.4%)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24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약진했다. 부산에서는 전체 16개 구청장 가운데 13개를, 경남에서는 전체 18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창원을 포함한 7개를 각각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5개 기초단체장 전체를 석권했다. 민주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도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첫 승리를 한 것은 물론,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거뒀던 대승(광역 12곳·기초 155곳)을 뒤집는 기록적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제7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앙권력에 이은 지방선거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권이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됐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 의원 선거도 모조리 휩쓸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총 824명(비례대표 포함)의 광역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79.1%에 달하는 652명을 차지해 지방의회 권력을 사실상 완벽하게 거머쥐었다. 한국당은 137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11명, 무소속 16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다.

2천926명에 달하는 기초의원도 민주당이 독식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총 2천541명)의 경우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50%가 넘는 1천400명으로, 한국당 876명, 바른미래당 19명, 평화당 46명, 정의당 17명, 민중당 11명, 무소속 172명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민주당 238명, 한국당 133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3명, 정의당 9명 등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56.8%)보다 3.4%포인트 높은 것이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23년 만이었다.

## ■ 민주, 한국당 아성 깨고 재보선도 압승

지방선거와 함께 총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두 자릿수 지역에서 치러지기는 2000년 이후 세 번째였다.

민주당은 ▲서울 노원병 김성환(56.4%) ▲서울 송파을 최재성(54.4%) ▲부산 해운대를 유준호(50.2%) ▲인천 남동갑 맹성규(61.6%) ▲광주 서갑 송갑석(83.5%) ▲울산 북구 이상현(48.5%)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47.7%) ▲충남 천안갑 이규희(57.8%) ▲충남 천안병 윤일규(62.2%)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68%) ▲경남 김해에 김정호 후보(63%)가 승리했다.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송언석 후보(50.3%)가 무소속 최대원 후보(49.7%)를 경합 끝에 493표 차로 어렵게 이겼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13일 오후 각 당 개표상황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 민심은 개혁과 평화 택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잇단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이슈가 지방선거 전체를 관통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거 기간 민주당은 '평화'를 앞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도 국정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한국당에 대한 냉혹한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잇따른 막말 논란이 참패를 초래한 또 다른 중요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 ■ 지방선거 후폭풍…정계개편 '격랑'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문재인 정부 역점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구심기 한층 공고해졌다.

반대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후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불만을 토로해 온 비홍(비홍준표) 진영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홍 대표의 사퇴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이 빚어졌다.

대안정당으로 가능성을 모색해 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제3당 실험도 중대 위기를 맞았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0석'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특히 당이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밀린 3위를 기록해 충격에 빠졌다. 원내 4당인 평화당도 지역적 지지기반인 호남 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으나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비록 기초단체장을 내지는 못했지만, 광역 지역구 의원 1명, 광역 비례대표 의원 10명, 기초 지역구 의원 17명, 기초 비례대표 의원 9명 등 총 37명이 당선된 데다 정당투표에서 1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지방선거 결과는 여야 잠룡들의 정치 행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은 존 재감을 부각하며 향후 대권가도에서 유력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여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서울시시장 3선 고지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사 논란 속에서 야권의 파상공세를 뚫고 승리를 쟁취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됐다. 무소속으로 재선 고지에 오른 원희룡 제주지사도 야권 잠룡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반면 선거에서 패배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시장 후보,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그리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보수 진영 야권의 구심점을 노린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등은 적지 않은 '와신상담'의 기간을 가져야 할 처지가 됐다.

## 전 세계를 달군 방탄소년단... K팝 열풍

### ■ 개요

2018년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서고 북미, 유럽 투어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21세기 비틀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연말 가요 시상식 대상을 휩쓴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